

# 화웨이 추격, 애플 도전... 삼성, 폴더블폰 리더십 유지 총력

## 폴더블폰 3파전 개막 임박

삼성, 보급형 라인업으로 시장 방어  
화웨이, 5년 만에 기술 자립 성공  
애플, 2년 내 폴더블폰 출시 예고

삼성전자가 장악하고 있는 폴더블폰 시장의 경쟁이 3파전 구도로 재편될 전망이다. 최근 중국 기업인 화웨이가 폴더블 폰 시장의 포문을 연 삼성전자를 바짝 뒤쫓으며 양강체제를 형성하고 있다. 이 가운데 애플도 2년 내 폴더블 폰을 출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쟁이 격화될 분위기다. 특히 화웨이는 폴더블 폰을 출시한 지 5년만에 기술 자립에 성공하며 글로벌 시장을 빠르게 장악하고 있는 데다 애플도 신제품을 공개할 때마다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도 폴더블폰 라인업을 강화해 시장 선두자리를 지키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2일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1분기 화웨이에 내줬던 시장 점유율 1위 자리를 탈환했다.

삼성전자는 폴더블스마트폰 시장 위축 속에서도 3분기 시장 점유율 56%를 기록했다. 올해 1분기 화웨이가 35% 점유율로 1위에 올랐지만 삼성전자가 다시 왕좌를 되찾은 셈이다. 카운터포인트 리서치는 폴더블 스마트폰에 대한 2분기 조사 결과는 내지 않고 있어 1분기 성적이 직전 분기에 해당한다.

작년 3분기와 비교하면 삼성의 점유율은 70%에서 56%로 감소했으나 1위를 기록했고, 화웨이는 같은 기간 13%에서



7월 1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안팎 2024에서 갤럭시Z 폴드6 제품이 전시되어 있다. /구남영 기자

15%로 소폭 상승했다. 아너는 5%에서 10%로 점유율을 두 배로 늘렸고, 1% 미만인던 모토로라와 샤오미는 각각 7%와 6%를 기록하며 성장세를 보였다.

주목할 점은 화웨이가 폴더블 폰을 출시한 지 5년 만에 기술 자립까지 성공하며 삼성전자를 바짝 뒤쫓고 있다는 점이다. 화웨이는 지난 9월 세계 최초로 두 번 접히는 폴더블폰 '메이트XT'를 출시했다. 회사는 지난 2019년까지만 해도 핵심부품과 소프트웨어까지 모두 외국 기업에 의존했다. 화면은 삼성디스플레이를 사용했으며 AP제조와 운영체제는 TSMC와 구글에 맡겼다. 하지만 그해 미국 정부가 화웨이를 거래 금지 리스크에 올리며 제재에 돌입하자 화웨이는 핵심 부품과 소프트웨어를 모두 자국산으로 바꿨다.

카운터포인트 리서치는 "폴더블폰

공급망이 성숙해지면서 삼성전자가 북미와 서유럽 등 주요 지역에서도 강력한 경쟁에 직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애플까지 조만간 폴더블 폰 시장에 합류할 것이라는 말이 나오면 시장 경쟁이 과열될 전망이다.

지난달 27일(현지시간) IT매체 BGR은 국내 저명한 IT팁스터 란즈크를 인용해 애플이 폴더블폰 개발에 본격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란즈크는 최근 공급망 소식통을 통해 "애플이 최근 디스플레이 업체들과 정식 개발 프로세스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 때문인지 삼성이 준비 중인 신형 폴더블 모델의 폼팩터 변화 시점도 좀 더 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업계에 따르면 애플의 첫 번째 폴더블 아이폰은 삼성 갤럭시Z플립 시리즈처럼 가로로 접는 '클립셀' 형태인 거승



화웨이의 3단 폴더블폰 메이트 XT. /뉴시스

로 알려졌다. 그간 애플은 화면 내구성, 주름 문제로 인해 폴더블 아이폰 출시에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근 문제를 해결했다. 애플은 특히 폴더블 아이폰을 접었을 때도 일반 아이폰과 두께 차이가 크지 않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다만 폴더블 아이폰의 정확한 출시 시점은 언급되지 않았다. 업계서 알려진 바로는 애플의 첫 번째 폴더블 제품의 출시는 2026년 또는 2027년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애플의 폴더블폰 출시가 시장의 경쟁구도를 뒤흔들 수 있다는 점이다. 그간 애플이 뒤늦게 출시한 신제품도 흥행을 이끌며 시장 선두를 탈환한 바 있다.

실제 애플은 생성형 AI 스마트폰의 후발주자임에도 올해 출하할 1위를 차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만간 공개될



아이폰 폴더블폰 예상 이미지. /Tech Town 유튜브

'애플 인텔리전스' 기능이 아이폰16 시리즈는 물론 전작인 아이폰 15 프로 시리즈까지 적용돼 시장의 50%가 넘는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 관계자는 "애플은 올해 AI 스마트폰 시장에서 50%가 넘는 점유율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비해 삼성전자는 애플보다 낮은 점유율 20%대로 2위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도 폴더블폰라인업을 강화하며 시장 선두 자리를 굳건히 하겠다는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두께·무게·성능을 모두 개선한 '갤럭시 Z 폴드 스페셜 에디션'을 선보였다. 내년에도 플립·폴드7 외에도 보급형 라인업인 '갤럭시 Z 플립 팬 에디션(FE)' 출시를 모색 중인 상황이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 사피온·리벨리온 합병... 1.3조 가치 AI 반도체 강자 탄생

### 미국·사우디 등서 가시적 성과 추구 파이토치 생태계 리더십 확보 목표

사피온코리아와 리벨리온이 마침내 합병절차를 완료하고 대한민국 대표 인공지능(AI) 반도체 유니콘 기업을 노린다. 합병을 마친 기업 가치는 1조 3000억 원에 달한다.

사피온코리아와 리벨리온이 사명 '리벨리온'으로 1일 공식 출범했다. 이번 합병은 AI 반도체 분야에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기업간 협력 강화가 시급하다는 산업 생태계 전반에 관한

공감대로 성사했다.

합병법인은 그동안 리벨리온을 이끈 박성현 CEO가 단독 대표를 맡는다. 박 대표는 MIT에서 컴퓨터공학(CSAIL) 박사를 마친 귀 인텔과 스페이스엑스, 모건스탠리 등에서 근무한 AI 및 시스템 반도체 전문가다.

사피온코리아가 기존 SK텔레콤과 SK하이닉스가 주주로 있었던 기업인 만큼 합병 후 리벨리온은 전략적투자자로 합류한 SK 측과 힘을 합칠 예정이다. SKT는 AI 데이터센터 분야 글로벌 진출을 위해 힘을 합치고, 리벨리온은 이를

바탕으로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요 시장에서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양사는 반도체 전문가들이 뭉친 만큼 기술 로드맵 달성을 위한 개발 효율성과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하드웨어 측면에서 리벨리온의 차세대 AI반도체 '리벨(REBEL)'에 적용된 '칩렛(Chiplet)' 기술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빠르게 변화하는 AI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또 AI 분야에서 대표적인 오픈소스 머신러닝 라이브러리인 '파이토치(PyTorch)' 생태계에서 리더십을 확

보함으로써 사용자들이 AI 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구현할 수 있게끔 하고자 한다.

향후 3개월 간 리벨리온은 인수 후 통합 과정에 초점을 두고 조직 통합과 정비에 들어간다.

박성현 리벨리온 대표는 "엔비디아의 독주와 함께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의 재편이 이미 시작되었다"며 "이러한 세계적 추세 속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두 NPU 기업의 합병은 대한민국 AI 반도체 산업의 성패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승부처가 될 것인만큼, 국가적인



박성현 리벨리온 대표가 서버랙 앞에 서있는 모습. 리벨리온을 이끌어온 박 대표는 사피온코리아와 리벨리온의 합병을 마친 새로운 리벨리온에서도 CEO를 맡는다. /리벨리온

사명감을 가지고 합병법인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서현 기자 seoh@

## 청정수소발전, 연간 750GWh 전력 공급 첫발

### 전력거래소, 청정수소발전 입찰결과 2028년부터 15년간 전기 공급

무탄소전원인 청정수소를 사용한 발전이 세계 최초로 시행한 입찰을 거쳐 첫 결실을 대신했다. 오는 2028년부터 청정수소로 생산한 전기를 연간 750GWh(기가와트시) 규모로 공급한다.

입찰시장 관리기관인 전력거래소는 2일 '2024년 청정수소발전 경쟁입찰 결

과'를 확정해 발표했다.

수소발전 입찰시장은 수소 또는 수소화합물(암모니아 등)을 연료로 사용해 생산한 전기를 구매·공급하는 제도다. 국내 청정수소 인증기준을 충족한 연료를 사용하는 발전기만 참여 가능하다.

전력거래소는 지난 5월 24일 입찰공고를 했고, 6개 발전소(5개사)가 6172GWh 규모로 입찰에 참여했다. 입찰마

감 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입찰제안서 평가와 수소발전입찰 시장위원회 의결을 거쳐 연간 750GWh 규모 1개 발전소를 최종 낙찰자로 선정했다.

낙찰사업자는 우리나라 청정수소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청정연료를 사용해 전기를 생산할 예정이다. 상업 운전은 인수기지·배관 등 인프라 구축, 발전기 개조 등 사업 준비기간을 거쳐 2028년

경 개시할 예정이며, 전력거래기간은 상업 운전 개시일부터 15년이다.

다만, 나머지 5개 발전소는 평가위원회의 평가에서 가격·비가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해 탈락했다. 입찰 규모 대비 약 12% 수준만 낙찰돼 청정수소 발전 경쟁입찰 흥행은 실패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찬기 산업부 수소경제정책관은 "이번 낙찰자 선정은 대규모 청정수소 수요 창출 및 청정수소 가격 발견에 의의 있다"며 "올해가 첫 입찰인 만큼 사업자들이 전력망 접속, 인프라 등 제

반 여건을 고려해 신중하게 입찰에 참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매년 입찰시장이 개선될 예정인 바, 투찰 사례가 누적되면서 참여도도 높아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향후 관계 전문가 및 업계와 소통하면서 온실가스 감축 및 경제성있는 청정수소 조달 등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입찰 결과는 전력거래소의 수소발전입찰시장시스템을 참고하면 된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